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 창원시에서도 지난 2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에 이어 3월 16일 현재 2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지속적인 방역과 함께 한마음병원 코호트격리, 보건소 인력 보강, 종합상황실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로 코로나 19 확진자의 증가를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유지하며 경계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관광현장의 최일선에서 관광객의 이동을 책임지고 계신 대표님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국을 제한한 결과 관광객의 이동이 줄어들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비롯한 관광산업 전체의 어려움 또한 점차 커져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창원시는 매년 개최되는 진해군항제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하는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창원시로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 벚꽃축제로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조기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데 더 나은 방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창원시의 입장을 헤아려 전세버스운송사업 대표님들께서는 진해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기원하며 창원시 직원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18.  
창원시장 허성무